

내가 너무 너무 소망 하는 아름다운 교회

사도행전 20: 7-12

요즈음은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 처음에는 자녁예배 대신에 주일 오후 오후 2시나 3시에 예배로 주일 저녁 예배를 대신하여 드리더니 이제는 아예 주일 대 예배만 드리고 더 이상 주일 저녁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은 교회가 많아 지고 있다. 내가 목회 할 때 나는 오히려 주일 오후 예배를 주일 자녁 7시 예배로 바꾸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자녀들을 축복 기도해 주었다. 그러자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수가 거의 대 예배에 참석하는 수준까지 되었던 것으로 기억 된다. 토요일도 일하지 않고 쉬게 되었는데 주일에 더욱 바빠 할 수 있는한 주일 예배시간을 주려서 개인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본문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있는동안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다. 본문의 내용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다. 7절에서 주일 첫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의미한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것은 성찬과 교제를 위한 식사를 의미한다.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는 성찬을 함께 하는 예배이었다. 8절에 “우리가 모인 곳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다”는 표현에서 모인 장소는 어느 가정 집인 것 같다. 바울의 강론이 길어지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죽은 청년을 살려 냈다. 그후 계속 밤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바울은 아튼날 드로아를 떠났다.

이 예배의 특징을 몇가지 살펴 볼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 예배인가를 알 수 있다.

첫째 제자들은 성 만찬을 위해 모였다.

7절은 드로아 교회의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관습을 묘사하고 있는 듯 하다. 부활하신 구세주의 죽음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성찬식이 매우 일찍부터 “사랑의 축연, 혹은 교제의 식사”라는 맥락에서 주일 예배의 주된 의식이 되었다는 것이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께 거하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가져 오는 의식으로 매우 귀중한 예식이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있어서 성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 도 오히려 부족하다. 어거스틴은 “성례 자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였다. 비록 우리가 매주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주님과 깊은 연합을 맛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너무나 풍성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말씀 강론이 매우 풍성했다.

저녁 식사 외에 설교가 있었는데, 그것은 실로 매우 긴 설교이었다. 첫 번째 설교는 해질 때부터 한 밤중까지 계속 되었으며(7절), 두 번째는 한 밤중부터 날이 새도록 계속 되었기(11절)

때문이다. 이것은 바울 혼자 이렇게 긴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함께 토론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이해 되고 있다.. 형식이야 어떻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깊이 나누고 교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은혜스러운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과 성찬의 교제야 말로 이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도 우리가 누랄 수 없는 큰 축복이다, 이번 ESF 한양회관 50주년 기념 예배가 끝난 후 중국에서 온 5명의 자매들과 3시간동안 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통역을 맡았던 한 자매가 그 시간을 통해서 맛보게 된 은혜를 길게 써서 한양회관 학사회 회지인 "안디옥"에 기고했다.

나는 이런 간증을 수 없이 많이 했는데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주말에 NY에 있는 스토니 부룩 대학에서 한인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설교를 했고 설교가 끝난 후 1시간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당시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많은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들의 부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셋째 죽은 자가 살아 나는 역사가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강론이 길어지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

9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예배 중에 졸다가 한 청년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러나 바울은 강론을 중단하고 침착하게 내려가서 그 죽은 청년을 살려 냈다..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하고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왕상 17:19이하), 엘리사가 수넬 여인의 아들에게 행했던(왕하 4:32-33) 전례에 따라 죽은 유두고의 몸위에 어드려 그 몸을 안고 그를 살려 낸 것이다. 그 후 떡을 떼어 먹고 긴 이야기를 하였다고 했다, 이것은 아마 부활의 복음에 대한 긴 이야기를 했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11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 결과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12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교회는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오늘날 교회에 나온 사란들 중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가?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어려운 문제를 들어 내기를 오히려 부끄러워 하고 뽐뽐 싸메두고 병어리 냉가슴 앓듯이 살아 간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문제를 드러내 놓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함으로 많은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은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 좋은 모범이다.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연합을 체험하고, 말씀 강론이 풍성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한다, 나는 또한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한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란다. 그리할 때 교회를 떠난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 오게 될 것이다, 그라고 텅텅 비어가고 있는 예배당은 구원 받은 성도들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